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주 일 예 배 2025년 11월 9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김현경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찬송하는 소리 있어 / 찬송가 19(신) 44(구)

*성시 교독 / 성시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큰 죄에 빠진 나를 / 찬송가 295(신) 417(구)

기도 / 한미숙 권사

성경 봉독 / 요한복음 3장 1-5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니고데모는 누구인가? / 박화신 목사

찬송 /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 찬송가 436(신) 493(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허락하신 새 땅에 / 찬송가 347(신) 382(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일대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고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은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2.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인생의 변환점을 맞을 수 밖에 없었고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 또한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3. 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다 하지만, 니고데모의 변화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현 시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생명샘 장로교회 2025년 표어

디모데전서
4장 15-16절

15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도서(2:11-14)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1. 값싼 은혜가 아닌, 구원을 이루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죄를 덮어주는 감정적 위로나, 잘못을 쉽게 용서해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11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능력이며, 죄의 지배에서 사람을 실제로 해방시키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은혜는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며 그리스도께 피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죄 가운데 머무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유를 사는 것입니다.

2. 삶을 변화시키는 훈련의 은혜

바울은 은혜가 “우리로 경건하게 살게 가르친다”(12절)고 말합니다. 은혜는 단지 용서의 선언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만드는 ‘가르침’과 ‘훈련’의 능력입니다. 참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 정욕을 버리고, 절제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은혜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빚어 갑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은 자는 “나는 은혜 받았으니 괜찮다”는 식의 자기중심적 안일함이 아니라, “은혜로 인해 더 거룩해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3. 거룩한 소망을 품게 하는 영광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복스러운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13-1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은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줍니다. 참된 은혜는 방종이 아니라 ‘거룩한 헌신’을 낳고, 자기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아는 교회는, 은혜를 핑계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은혜를 힘입어 세상을 거슬러 사는 공동체가 됩니다.

생명샘소식

1. 생명샘 장로 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라는 표어로 남은 귀한 시간들을 계속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귀한 인도하심으로 성숙해지는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3.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4.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는 골로새서 공부를 통해 귀한 주님의 인도하심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5. 11월 23일 주일을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6. 11월 30일 주일 각 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7. 12월 4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영상으로 재정 운영위원회로 모입니다.
8. 이번 주 기도제목
전도회 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정호(미얀마), 강승우(파라과이) 선교사님 위해
금요 성경공부(골로새서)에 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교우들의 건강과 기도제목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월 예배 위원

안 내	조 창		박 승 화			
기 도	한규철(2)	한미숙(9)	조창(16)	박승화(23)	한광기(30)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 읽기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호수아는 유언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공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고 약속하지요.

하지만 여호와를 비롯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 이후 세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1세대의 자손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을 지키신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대적 신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미 영원한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말한다고 해서 가족을 비롯한 남들이 다 듣고 믿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 해서 말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산 것이 비참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고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